

카네기홀 연주

지난주일 오후 7시부터 카네기홀에서 월드밀알찬양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에 이 찬양축제에 참여한 이래 5년 만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찬양의 은혜 속에 연주자나 관객이 모두 함께 깊은 은혜에 잠긴 멋진 밤이었습니다.

월드밀알찬양대축제는 2001년 세계무역센타 건물이 테러로 무너진 이후 그 아픔과 상처를 찬양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한 찬양제였습니다. 지난 2년간은 팬데믹으로 인해 열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어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교회의 찬양순서였습니다. 첫 곡인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찬양할 때 그 웅장함에 카네기홀이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려운 곡이라 연습할 때도 힘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연습했고, 최선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공연 날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셔서 정말 "와!" 하고 탄성이 터져 나올 정도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인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는 장년 찬양의 웅장함과 유년부와 유스 그룹 찬양의 신선함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가사 내용에서도 "우리에게 요셉의 꿈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쓰이게 하소서"하는 가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는 소망으로 가득찬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월드밀알 오케스트라 사이사이에 보이는 우리 유스 그룹 학생들의 연주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 최고의 음악홀에서 연주하고, 세계 최고의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커야 미래에 큰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홀 연주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집회 인도차 한국으로 가야했기에 많은 분들의 소감을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몇 분들의 말씀이 이번 찬양 연주회의 모습을 잘 정리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이번 찬양제를 통해 세 가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첫째, 예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생겼다고 합니다. 둘째, 예일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일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위해 준비한 여섯 가지 행사들 중 이제 첫 두 가지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우스 콘서트도, 카네기홀 찬양제도 너무 너무 큰 감동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볼리비아 선교사 파송과 필리핀 선교지 기념교회 건축, 내년 부활절 드라마 공연, 창립 30주년 기념 임직식과 예배, 마지막으로 9월 10일에 있을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새벽이슬회(청년)	오후 8:00 (금요일)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 (3세 미만)	오전 11:00
	유치부 (3-5세)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미정(T.B.A)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VISION 2022
EVANGELISM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1권 42호 주후 2022년 10월 16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백에스라목사	우영주목사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310장, 304장		
기도	강호정집사	정수영장로	김동환장로
성경봉독	사(Isaiah) 61:4-9		
찬양	정현숙사모 정현미권사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회복 우영주목사		
찬송	630장		
봉헌	다같이		
환영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우영주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일예배 10월 19일 오후 8:30

- 기도: 박지혜권사
- 말씀: 김용일목사
- 다음주 기도: 4남선교회 헌신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김선태집사
- 2부: 김용호장로
- 3부: 전용수장로

10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박지숙집사
- 3부: 신정애권사 임미라권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담임목사 동정:** 하남 새빛교회 부흥회 인도로 출타 (-10/19)
- **수요예배 설교:** 김용일목사 (하남 새빛교회)
- 교회 내 마스크 착용 및 성도간의 악수는 자율에 맡깁니다.
교회 내 공식적인 점심 식사와 친교는 내년 1월부터 예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사랑선교회 선교모임 및 목장모임:** 오늘 3부예배 후 친교실
- **당뇨, 혈압 측정 및 Covid-19 테스트:** 친교실 (주관:의료사역부)
- **10월 목장예배:** 10/21(금요일) 오후 8:30, 각 목장별로
* 10/19 수요예배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모임 및 목장교안 배부
- **제직회 안내:** 10/23(주일) 오후 2:30, 본당
- **제51기 새가족 만남:** 10/25-11/08 (매주 화요일 오후 8:30, Zoom과 교회)
-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찬양제 연습:** 3부 예배 후, 찬양대실
*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식사대접 하실 분과 부역봉사로 섬겨주실 분은 찬양위원회(박재우장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꽃: 박성우집사&김영애권사(손자 김하준 첫돌)
- 사랑의 식탁: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11am Service).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새가족

- **이무영집사&유미영권사**(넘치는목장, 3선교회 Melville, NY 11803)

교우동정

- **타주이주** : 최원걸집사&최상희집사 (Pennsylvania)
- **한국방문** : 최정희권사

행사예고

- 10/26 (수) 4남선교회 헌신예배
- 10/31 (월) 사랑선교회 효도관광 (롱아일랜드 롱비치)

건강할지어다(막 5:25-34)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다.

[사실]

1. 열두 해 혈루증 앓는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당시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자가 만지는 물건도 불결하다 생각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이유는 그의 옷에 순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
2.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우연히, 어쩌다 만진 사람 말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라고 반문했다.
3.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예수님을 향해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쭙었다.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는데 누가 만진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 앞에서 여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다.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능력이 있음을 밝혀주셨다.

[의미]

1.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 명예도 다 의미가 없어진다.
2. 믿음은 희망을 준다.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에서 나온다(롬 10:17). 다 잃어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1)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2) 예수님은 고칠 능력이 있다.
3)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더러움도 허물도 덮어 주신다.
3. 믿음은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약 2:17). 아무 시도도 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에게 나타난다.

[적용]

1. 나도 오늘 복음을 들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2. 간절히 간구하자.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있어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3.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자. 불행히 주님 만나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
- CSN (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 K-Radio AM 1660 (라디오): 매주 수요일 오후 12:54 (목회자 칼럼)